▶ 전북도립미술관, 이남석 8번째 개인전

역동적 붓질 반복 삶의 궤적 표현

질서·율동성 조화롭게 담긴 색·선들 자신만의 색 잃지 않으려는 새들의 날갯짓 거친 세상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투영

이남석 작가의 여덟 번째 개인전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세류(世流)'전에서 역동적이고 중첩된 붓질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삶의 궤적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작가로서 살아가는 갈등과 몸부림, 치열함을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 한다. 작가의 붓질은 이런 역동적인 동작의 회화성을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다.

질서와 율동성이 조화롭게 담긴 색과 선들은 강한 붓 터치가 가득한 배경색과 어우러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서려있다. 여기에는 거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

작가의 노동 행위로 생겨난 작품 표면의 깊고 불규칙한 주름들은 하나하나 새가 되어 주인공이 감내했어야 했던 삶의 고단함과 치열함을 보여준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응축된 기다림의 시간들을 반복적인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면서 "물질과 의식의 허망함을 자유로운 새들을 통해 깨우치게 함으로써 욕망의 번잡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석 작가는 원광대학교 한국화과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 현대미술전(Noho Gallery)에 초대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5회 입상, 전국 공모전에서 29회 입특선 하였으며, 2015년 제1회 전업미술가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 미술대전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전북미술협회·전업미술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교수들, 개교 70주년 '산조의 밤' 마련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학과장 이화동 교수)가 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수음악회 무대를 꾸민다.

17일 오후 7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산조의 밤'으로, 정회천 교수를 비롯해 윤화중·이화동·신은주·이동훈 교수와 원장현 초빙교수, 조용수·서영민·신찬선 객원교수 등이 출연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정회천 교수가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선보이는 것일 비롯해 이동훈 교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윤화중 교수가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가 펼쳐진다.

또한 제8회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장원에 빛나는 원장현씨가 '원장현류 대금산조'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고풍스럽게 물들이고, 교수진들이 참여하는 '시나위 합주'와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이 흥겨움까지 선사한다.

이화동 학과장은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수음악회 '산조의 밤'을 무대에 올리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한국음악과 교수 일동은 그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있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최기우 '달릉개', 작가의 눈 작품상 선정

심사위원단 "글쓴이가 글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떠올라"

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는 '제8회 작가의 눈 작품상' 수상자로 극작가 최기우(45·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겸임교수) 씨를 선정했다. 수상작은 희곡 '달릉개'.

이병천·안도현·복효근·김병용 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극작가 최기우 씨는 전라북도 연희 전통을 충실히 계승했음은 물론 현대적인 재창조의 선봉에 서 있다"면서 "그의 희곡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쓴이가 자신의 글 안에서 즐거워하고 재미지게 노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평했다.

최 작가는 "연출가와 배우가 아니라 문학을 하는 선배들, 삶의 동력인 선배들이 희곡을 읽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 출신인 최기우 씨는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소설)로 등단했으며, 전북 콘텐츠를 소재로 연극·창극·뮤지컬·창작판소리 등 무대극 집필에 힘을 쏟고 있다. 희곡 '상봉'(2003)과 '은행나무꽃'(2014)으로 전국연극제 희곡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현재 최명희문학관 학예연구실장과 ㈔문화연구창 대표, 얘기보따리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전북작가회의 총회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올 'This is it' 마무리 공연 화려한 무대는 '이제 시작'

국립전주박물관 야간개장 공연 21일 LED 트론댄스 등 선보여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의 야간개장 공연이 오는 21일 오후 6시 'This Is It(지금 시작이다)'을 끝으로 올해의 막을 내리게 됐다.

공연은 10대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열정을 주제로 스토리가 있는 종합예술 퍼포먼스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공연이었던 'This Is It'을 토대로 기획됐다.

특히 마이클 잭슨을 재연한 '미디어 퍼포먼스'와 LED 전구를 이용해 군무를 선보이는 'LED 트론댄스'는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 무대. 레이저 쇼와 더불어 화려한 안무와 쇼맨십이 선사하는 환상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공연은 문제아 반에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담임선생님은 모두가 포기한 아이들의 재주를 눈여겨보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과 변화를 돕는다는 줄거리가 전개되며, 여기에 매직쇼와 디제이 파티 등 다양한 연출이 더해져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신청은 1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한편 10월 테마별 가족 영화에선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이 28일 오후 6시 문화사랑방에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